

사회

인건비 가로채고 결혼아동 지원비까지 빼돌려

낮부끄러운 비리 교수들

목포대 아동드림사업단장 등 13명 2억 횡령 원자력 용역비 편취 전남대 교수·강사 6명 입건

상아탑이 비리로 물들고 있다. 지역 국립대 교수·교직원들이 공모해 결혼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비를 유혹비와 개인 용도로 쓰는가 하면, 연구용역에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를 가로챘다. 비리에 연루된 교수들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대학사회 전반에 자성과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전남의 섬지역 내 결혼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멘토링과 방문서비스 등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4억~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물품 납품

업자들과 결탁해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박 교수 등은 타월 등 기념품을 제작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개인용 PC와 내비게이션 등을 구입하고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서해해경청은 이들이 빼돌린 돈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교수나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울산해양경찰은 이날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학생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모(50·이모(59)교수, 시간강사 등 6명)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 교수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28억원의 용역비를 발주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모두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 교수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인 대학생 8명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학생 30여 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교수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대학생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일제고사 두 모습... 시험 vs 시위

26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광주 치령초교 6학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왼쪽)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소속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은날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초등학생 29명이 시험을 거부, 체험학습을 했다.



26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광주 치령초교 6학년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왼쪽)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소속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은날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초등학생 29명이 시험을 거부, 체험학습을 했다.

지출액 부풀리고 카드깡 현금화 안마·골프에 부동산 매입까지

횡령 수법·용처

교수들이 사립비나 인건비를 가로채기 위해 사용한 교묘한 방법에 경찰도 혀를 내둘렀다. 목포대 박모 교수 등은 우선 가장 고전적인 '지출결의서 부풀리기', '연구원 가져 채용을 통한 인건비 챙기기', 법인카드를 업소 등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 한 것처럼 한 뒤 업소 등에 카드수수료·세금·부가가치세 등을 건네고 현금을 받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했다. '카드깡'으로 1800만원, 교직원 부인 등을 사업단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 2000만원 등을 착복한 것이다.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 성과급·급여·교

육비를 지급한 다음 다시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들이 빼돌린 방법은 또 있었다. 자신들의 거래처 업체의 개인 카드를 건네받아 안마시술소나 골프장을 드나들고, 식사나 술·담배 구입 등에 쓴 뒤 이 업체에게 카드대금이 청구되면 그만큼 학용품 등을 구입했다며 사업단 법인카드도 결제해왔다. 법인카드는 유혹비 등에 쓰지 못하자 '카드 세탁'을 한 것이다. 울산해양경찰에 적발된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모·이모 교수 역시 가로챈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경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dss6116@

시교육청 사학 제재 '제동'

광주지법 "송원학원 학급감축 부당" 판결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며 학교법인 송원학원에 내린 제재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근 송원학원이 "학급감축 등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적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전까지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적 제재조치의 집행으로 송원학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15일 송원학원측에 산하 고교의 학교시설공사 부당수의계약(3억4000여만원 상당), 총지수수 관련 교사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의·경고,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송원여고에 대해 2년간 3학급 감축, 목적사업비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윤영기자 penfoot@



檢, CNC대표 출두 통보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선거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6일 현 CNC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CNC 금영재 대표와 이 회사 직원 등에게 이번 주내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CNC 금 대표의 이 업체의 사실상 소유주인 통합정보당 이석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사인하자 대표로 취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킹 여성 클럽에서 성폭행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클럽 내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하모(32)씨는 지난달 6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관전동 한 나이트클럽 2층 룸에서 이날 처음 만난 A(여·23)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는 것. ○...조사결과 허씨는 다른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뜬 뒤 종업원에게 부킹을 부탁해 홀로 룸을 찾아온 A씨를 상대로 범접을 저질렀다는 것.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족에 100만원씩 받고 비자발급 조작

광주경찰, 여행사 대표·공무원 등 16명 검거

조선족에게 체류비자가 부정발급 되도록 서류를 꾸민 여행사 대표와 개인정보를 건넨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방문취업(H2·중국동포에 1년 체류 허용)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의 관련서류를 위조, 3년 단위로 연장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 안산시 A여행사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뇌물을 받고 외국인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이모(44)씨와 알선책 등 6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인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조선족들에게 비자를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주겠다고 67명에게

서 1인당 100만원을 선불로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김씨는 지난 2010년 고향 후배인 나주의 박모씨를 알선책으로 이용, 나주의 버섯·배농장의 농장주들을 포섭한 뒤 조선족이 1년간 농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매월 100만~110만원씩 농장주 이름으로 입금, 통장 내역을 조작하는가 하면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개시 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10명의 조선족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취직시켜 주겠다"

40대女 12억 가로채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돈을 잘 버는 곳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로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김모(여·48)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2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모(49)씨 등 모두 12명에게 "○○과학기술원 관리직으로 계약서와 취업개시 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10명의 조선족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해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구 고엽제 회원 2명 교통사고 사망

서울에서 열린 6·25행사에 참석한 뒤 광주로 돌아오던 고엽제전우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들이 탄 승합차가 타이어 파열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4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분기점 대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광주지부 동구지회 소속 김모(70)씨와 최모(68)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6·25전쟁 제62주년 기념 '대한민국지킴이 6·25 국민대회'에 참석 한 뒤 광주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 1966년과 1967년 월남전에 참전해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경찰은 승합차 앞바퀴의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화교 중국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 www.ocskj.com. 광주에 단 한곳뿐인 6년제 중국학교.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지원자격: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이전 출생자. 원서교부: 2012년 7월 1일 ~ 7월 9일(9일간) 오전 10:00~오후 04:00. 원서접수: 2012년 7월 10일 ~ 7월 14일(오전 10:00~오후 03:00). 원서접수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구비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매, 소명합판 사진 3매(3x4cm), 주민등록등본 1통. 서류전형일: 2012년 7월 15일(합격자대상자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원서료: 10,000원 (원서 교부시). 유치부등록일: 2012년 7월 16일 ~ 7월 20일. 소집일: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 개원일: 2012년 8월 21일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유의사항" 1. 생년월일 미달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대기자 등록 가능: 정원 미달 시 생일 순으로 입학가능) 2. 등록후에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3. 학기중에는 입학이 불가능 합니다.(華僑 제외) 4. 입학 후 본교의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비는 산정 후 반환됩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 232-4163 - 전화상담시간: 오전 10:00~12:00. 光州華僑中國學校 Tel.232-4163